

3월29일 Market Index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금리 (미국 9년) 3.322 (+0.029)	환율 (원-달러) 1347.20 (+1.00)

재계의 큰 별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02



입항 악화에 차입금 의존 ↑ 'PF 보증' 대응여력 빨간불

건설사 신용등급 줄하향

수주 줄고 원가 부담 여전히 높아
현금자산 소진, 차입금 증가 속도
GS·신세계건설 등 신용등급 낮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이른바 '4월 위기설'이 여전한 가운데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호황기에 비축해 뒀던 체력은 불경기에 대부분 소진됐고, 신용등급을 불문하고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는 커졌다. 이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PF 보증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3월에 걸쳐 GS건설(A+/부정적 → A/안정적)과 신세계건설(A/부정적 → A-/안정적), 한신공영(BBB-/안정적 → BBB-/부정적), 대보건설(BB-/안정적 → BBB-/부정적) 등의 신용등급이나 등급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기업평가역시 신세계건설의 등급을 하향하고, 한신공영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다.

한신평은 "올해 들어 등급전망이 '부정적'인 업체, 상대적으로 재무부담이 큰 BBB급 이하 건설사들의 신용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23년 결산 감사보고서 공시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정기평가 등을 통해 일부 A급 건설사를 중심으로 신용도 변화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신용등급·등급전망 하향 건설사(BBB-이상)〉

업체명	구분	2022.12	2023.12	2024.03
롯데건설	장기 단기	A+/부정적 A2+	A+/부정적 A2+	A+/부정적 A2+
GS건설	장기 단기	A+/안정적 A2+	A+/부정적 A2+	A/안정적 A2
HDC현대산업개발	장기 단기	A/부정적 -	A/부정적 -	A/부정적 -
신세계건설	장기 단기	A/안정적 A2	A/부정적 A2	A-/안정적 A2-
KCC건설	장기 단기	A-/안정적 A2	A-/안정적 A2-	A-/안정적 A2-
한신공영	장기 단기	BBB/부정적 A3	BBB-/안정적 -	(BBB-/부정적) -
대보건설	장기	BBB-/안정적	BBB-/안정적	BBB-/부정적

주1) 장기등급은 Issuer Rating 포함. Bold체는 해당 년도에 등급변동이 발생한 경우임
2) 한신공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2024년 2월 28일 만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증사채(AA/A/안정적) 등급만 존재

밝혔다. 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계 착공은 3만 4000호로 이전 10년간 평균 대비 33.6%나 급감했다. 특히 수도권은 2월 누계 기준 착공이 1만 6000호로 10년 평균 대비 39.8%나 감소한 것은 물론 이미 건설경기가 위축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2.3% 줄었다.

향후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역시 2월 누계 기준 4만 9000호로 전년 대비 10.4%, 10년 평균 대비 31.7%나 적은 수준이다.

반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월 6만 5000가구로 작년 11월 5만 8000가구, 12월 6만 2000가구, 올해 1월 6만 4000가구에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김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건설

수주액과 착공물량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사원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사업환경은 지금보다 더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비우호적인 업황"이라고 판단했다.

신용등급 AA급 건설사들의 순채권 규모는 작년 3분기 2조 9000억원까지 축소됐다. A급 건설사들의 순차입금 규모는 작년에만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BBB급 건설사도 1조 2000억원의 순차입금이 늘었다.

특히 차입금의 대부분은 기업어음이나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차입 위주로 진행됐다. 2021년 38.9% 수준이었던 20개사의 평균 단기차입 비중은 작년 3분기 53.8%까지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제22대 총선 선거공보물 발송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열을 앞둔 31일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우편함에 주민이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을 꺼내고 있다. (관련기사 4·6·8면) /뉴스

OSI, 7개분과 표준지침 9종 개발 韓, 장기모사체 글로벌 리드 박차

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

⑤ 표준화 경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전무
정부 주도 표준화 작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만큼이나 '오가노이드 표준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 표준화라는 것은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힘든 다이아몬드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실제 장기와 가까운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전무한 만큼, 글로벌 표준화를 먼저 이루는 국가가 오가노이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도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오가노이드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한국, 표준화 기선 잡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는 OSI는 간·장·심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

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 9종을 개발했다. 6개월만의 성과다.

지난해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균관대학교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가 세워졌다. OSI는 간·장·심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과 공통 표준 지침을 2개를 세계 처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간(肝)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산업용 화학물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이를 테스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부 논문(Detailed Review Paper-DRP)의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월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OECD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덩치커진 인뱅... 대환대출에 이자익 60% ↑

인터넷은행 이자이익 3조 533억
카뱅 58% 토뱅 155% 케이뱅 17% ↑

대환대출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의 이자이익은 3조원으로 지방은행 이자이익의 50%를 넘었다. 공고했던 은행권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

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이자이익은 3조 53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연간 이자이익은 2조 481억원으로 전년(1조 2939억원) 대비 58% 늘었다. 토스뱅크는 5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4억원(155%), 케이뱅크는 4504억원으로 652억원(17%) 증가했다.

◆대환대출서비스에 인뱅으로 몰려
인터넷은행의 이자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확대되며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탄 고객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더 낮은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를 마련했다. 지난해 서비스를 통해 대환대출한 금액은 3조 3851억원으로 총 14만 4320명의 차주가 이용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은 4분기 기준 16조 4000억원으로 1년전(14조 5000억원)과 비교해 2조원가량 늘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l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원희룡,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아빠 찬스 논란 "도저히 용납 어려워"
▲ 인요한 "정부 잘한 거야... 잘못 인정하고 방향 바꿀 용기 있다" (사진 뉴스)

▲ 공식선거운동 첫 휴일, 충북 후보들 표심잡기 후끈
▲ 차기 대권주자 이재명 27%·한동훈 20%... 조국 3위



▲ 국힘 장영하 후보 "민주당 지지자, 야당과 한 세력"
▲ 민주당 박용진 "국힘 후보 공보물에 사진 도용... 분노 치밀어" (사진 뉴스)